

Paper Pop-up Store

Jul15 - Aug 26,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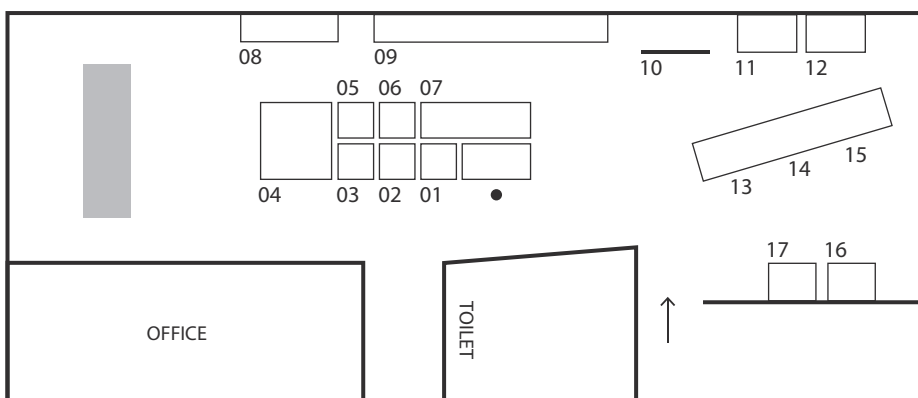
전시 "Paper is" 와 연결된 팝업스토어 "This is paper" 에서는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러나 실험적인 종이 오브제들을 모았다. 종이는 늘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소재가 아닐까 싶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종이의 물성 자체를 탐구하는 작가부터 그래픽 디자인으로 종이에 색을 입히는 브랜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작은 소비가 마음의 힐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담한 종이 상점을 기획하였다.

Directed by Jooyeon Choi

Creators

- | | | |
|----|----------------|---------|
| 01 | Subong Choi | 최수봉 |
| 02 | studio word | 스튜디오 워드 |
| 03 | TWL | 티더블유엘 |
| 04 | Le Site Pigeon | 르시뜨피죤 |
| 05 | BLACKHEART | 흑심 |
| 06 | Whitestore | 백상점 |
| 07 | al_season | 아엘시즌 |
| 08 | Datz Press | 닷프레스 |
| 09 | Toolpress | 툴프레스 |
| 10 | Jungmo Yang | 양정모 |
| 11 | Sangwoo Son | 손상우 |
| 12 | Jiyeon Yang | 양지윤 |
| 13 | Namgwon Lyu | 유남권 |
| 14 | Woojai Lee | 이우재 |
| 15 | Bokyung Go | 고보경 |
| 16 | Sohosu | 소호수 |
| 17 | Joona Lee | 이준아 |

Floor Plan



PAPER IS THIS

01 Subong Choi 최수봉

남원부채는 1925년경에 당시 조산리에 부채 산업조합을 설립하여 만주와 일본 지역에게까지 수출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채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남원부채의 마지막 명장 최수봉 장인은 지금까지도 국산 대나무의 탄력과 한지의 질감이 돋보이는 부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02 studio word 스튜디오 워드

스튜디오 워드는 주변 환경과 오브제에 대한 관찰과 발견,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언어를 통해 그래픽과 제품, 가구와 공간 등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평한지’는 3대째 대를 이어오면서 안치용 한지장(충북 무형문화재 제17호)이 전통한지의 제작 기술을 유지,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괴산에서 자란 섬유표이 긴 닥나무를 원료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색 한지를 만들어 쓰임을 늘리고 다양한 기능성 한지 제작을 시도하시는 등 한지의 현대화 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3 TWL 티더블유엘

TWL, Things We Love는 ‘사용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물건,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건전하고 충실한 일용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전통 한지에 현대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담은 TWL Original Hanji 시리즈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좋고, 일상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가깝고 아름답고 유용한 종이’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한지가 완성되기까지의 긴 여정 속 장인들의 움직임, 색과 재료의 빛깔을 모티브로 TWL과 studio fnt가 디자인했습니다.

04 Le Site Pigeon 르시뜨피죤

르시뜨피죤은 지역이나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의 사이트(SITE)로서 그 성격에 부합되는 상점들을 운영합니다. 일대일 응대를 통하여 상품이나 선물을 소개하는 [PHARMACIE], 식품들의 소비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주방의 식기나 조리 도구들을 판매하는 [MARCHE],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PIECE]는 “Home&Artisan”의 개념으로 삶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선된 일상 용품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05 BLACKHEART 흑심

우리만의 취향과 기준으로 수집한 연필과 그에 관련된 물건들이 담겨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추억의 도구로 전략해버린 연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연필을 소개해드립니다.

06 Whitestore 백상점

백상점은 소재와 기능의 본질이라는 컨셉으로 소재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순수하고 명료한 형태를 찾아가고 연구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07 al_season 아엘시즌

아엘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의 변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고민하는 아엘의 디자인을 사람과 공간에 접목하며, 일상생활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격조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을 제시합니다.

08 Datz Press 닷프레스

책 만드는 창작 작업실, 닷프레스는 사진가, 디자이너, 북아티스트가 모여 사진을 중심으로 한 시각예술 분야의 책을 기획하고 만듭니다. 닷프레스의 책들은 섬세한 수공과정을 통해 한정수량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북프로젝트 스페이스 다크룸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닷미술관을 함께 운영하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전시, лек처,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합니다.

09 Toolpress 툴프레스

툴프레스는 원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고, 레터프레스로 표현하는 작업실입니다. toolpress & 는 그런 툴프레스의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보다 여러가지 소재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새로운 작업들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toolpress & hanji 는 툴프레스의 패턴을 한지 위에 입힌 작업물입니다.

10 Jungmo Yang 양정모

2016년부터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예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구, 조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 국제 가구 박람회(IFFS 2016)에 디자인 스타로 초청되어 전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진행하는 디자인 지원사업에서 디자인 멘토로 활동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리빙 및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까사리빙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유럽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베니스 디자인에 초청되어 전시하였습니다.

11 Sangwoo Son 손상우

작업의 구상은 안개에서 출발합니다. 안개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을 의미적으로 확장시켜 인간관계에서의 기억과 교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안개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한지와 투명 합성수지를 혼합합니다. 이질적인 두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층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볍고 투명한 재료의 물성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목재와 금속 등 또 다른 이질적인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조형미를 찾아 나갑니다.

12 Jiyeon Yang 양지윤

햇살, 바람, 식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작업합니다. 한지에 스미는 빛과 닥섬유의 고슬고슬한 질감에 매료되어 한지 행잉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아가 원하는 형태와 질감의 한지를 직접 떠서 다양한 조형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제에서 공간 설치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3 Namgwon Lyu 유남권

동양화를 전공한 유남권 작가는 2006년 남원의 옷칠 장인 박강용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서울과 남원을 오가며 재료와 새로운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옷칠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4 Woojai Lee 이우재

이우재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기반을 둔 한국계 뉴질랜드인 디자이너입니다. 재료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건축과 조각의 특성을 조합해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냅니다. 작품은 재료, 공예, 그림, 조각 등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5 Bokyoung Go 고보경

<물질 공간>은 물질과 공간이 상호 가치를 부여하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의 유기적 성질과 질감, 그리고 조직감이 구조적 형태의 바탕이 되고 기(器)의 형태를 시각화합니다. 형태의 본래 용도, 기능, 이미지를 초월하여 한지사라는 섬유 소재를 통해 익숙한 형태가 또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 공간>시리즈는 부분 조명 기능과 장식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은 옷칠로 마감했습니다. 사용자는 이 제품을 통해 자연적 또는 인공적 빛에 따라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명암, 색채, 질감 덕분에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 Sohosu 소호수

사람의 손길이 머문 나무 그림을 그리고 오브제를 만듭니다. 나무의 조각들을 찾아 모아 편집해 감성과 사유, 호기심과 상상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가만히 그림과 나무 오브제를 바라보는 동안 잠시 당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7 Joona Lee 이준아

끓어질 듯이 부드럽고 연약한 실은 한 줄 한 줄 엮어 견고한 니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실의 합사, 조직의 짜임, 두께감, 실의 배합 등으로 천차만별 다른 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으로 작가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놀이’입니다. 이번 공간에서는 종이와 가지가 있는 견고함과 유연함을 살려, 면과 면이 교차되며 만들어내는 풍부함 그리고 공간에서 빛과 함께 보여지는 은은함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Space B-E

www.spacebe.co.kr

Instagram

스페이스비 @be_archived

윤현핸즈 @younhyun_hands_store

윤현상재 @younhyun_official